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고연실
제목	나는 변화중이다		
<p>우리 부부는 강사입니다.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4년 전 대출을 받아 가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절반을 투자하였지만, 운영은 온전히 저의 몫이었습니다. 주방에 직원 1명을 두고, 저는 홀에서 서빙을 하며 휴일 없이 가게에서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임대료가 워낙 비싸서 가게를 쉬는 건 엄두도 낼 수 없었습니다. 학원에 출근하는 신랑이 가끔 오전에 일해주면 밀린 집안일을 하고 난 후 잠시 쉬었다가 가게로 가는 것이 저의 휴식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신랑과 제가 서로 돌아가면서 일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육체노동에 다리는 붓고, 손님들의 날카로운 말에 상처를 받아 울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이 함께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신랑과 저는 밤 11시쯤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그동안 초등학교 아들은 이모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와 혼자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왜 나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가게를 시작했어?' 라고 원망 담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만 힘든 줄 알았는데, 아들도, 신랑도 모두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은 미래에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p> <p>가게를 시작한 처음 1년 동안 인건비는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 이자와 저의 긴 노동시간을 생각하면 실질적으로 손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은 더 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가다가 2년 반쯤 되었을 때 저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의욕이 없고, 우울했고, 가게에서 우는 날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짜증이 늘고, 그것이 아들과 신랑, 가게에 투자한 언니에게 고스란히 돌아갔습니다. 몸도 관계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결국 언니가 가게의 절반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일주일에 4일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p> <p>3일의 휴일은 저를 숨 쉴 수 있게 했습니다. 너무도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당시 사람의 마음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여성가족부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전문상담원으로서 가능성을 꿈꾸며 100시간의 수업을 들었지만, 들을수록 깊은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짧은 공부로 누굴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대학원을 갈까? 다른 것을 전공한 내가 심리석사과정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왕 제대로 공부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학부 2학년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상담심리학과를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학교선택의 1순위는 '시간과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였습니다.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수업이 적합하니까요. 여러 사이버대학교의 특성을 비교하고 고민한 후, 결국 저는 한양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2학년에 편입하게 되었습니다.</p> <p>처음에는 사이버대학교 수업방식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컴퓨터를 다루는데 미숙한 저에게는 강의를 듣기 위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도전이었습니다. 또한 수업 내용 때문에 한 번 더 고생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이어서 쉽고 편하게 이수할 줄 알았던 제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생소한 내용의 강의를 주어진 기간 안에 듣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또한 긴 강의시간과 간간한 강의내용, 쏟아지는 과제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4과목 정도 수강하라는 선배들의 말을 무시하고, 욕심이 앞서서 6과목을 수강한 덕분에 저는 그 속에서 헤맸습니다. 그 중 전공과목인 학습심리, 이상심리, 성격심리는 강의를 들어도 낯선 용어들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았고, 몇 번을 읽어도 암기가 잘 안되</p>			

었습니다. 머리 탓, 나이 탓을 하며 속상해 했습니다. '첫 학기만 잘 버티내자. 무엇이든 처음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라는 말을 되뇌이며 보냈습니다. 온라인대학교는 일정을 체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적다보니, 일정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강의 마감일, 과제 마감일, 시험일 등을 잘 정리하여 스케줄 조정을 해야 했습니다. 가게에서 한가할 때 강의를 듣고, 집에 와서 요약정리하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듣는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첫 학기는 주변을 살펴볼 여유없이 적응하는데 온 신경을 썼습니다.

두 번째 학기는 좀 더 수월했습니다. 1학기 처럼 공부하면 졸업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강의시스템에 익숙해졌고, 나름대로의 공부방법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심리학의 매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업에서 배웠던 이론들로 저와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수강과목 중 유서를 작성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는 어떠한 생각을 할 것인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라는 교수님의 의도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살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죽음은 공포였고, 나와는 먼 이야기이고, 오지 않을 것처럼 외면하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신랑과 아들 그리고 친정엄마에게 글을 쓰며 제가 살아온 것에 대해 되돌아보았습니다. 신랑과의 15년 결혼생활은 이제 새로울 것 없고, 설레임도 없는 일상의 반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속에 있는 배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유서를 작성하며 신랑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습니다. 잊고 있었던 즐겁고 행복한 지난 시간을 떠올렸고, 곁에서 큰 산처럼 든직하게 있는 그 사람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춘기의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동안에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품에 안았을 때의 그 조심스럽고 벽찬 감정, 나를 바라보며 방긋 웃어주던 그 미소, 엄마라고 처음 나를 불렀을 때의 그 순간 등이 떠올랐습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이는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어느덧 너무 많은 조건을 제가 부여했습니다.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서슴없이 비난하고 질책하며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했던 저의 행동을 반성했습니다. 저의 양육방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친정엄마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두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엄마에 대해 고마움과 미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저는 항상 엄마를 생각할 때마다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 미운 마음의 시작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일이었고,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유서가 그들에게 읽히게 될지는 모르지만, 확실한건 그것을 쓰면서 '나의 삶은 어느 방향을 지향하는가?'를 스스로 묻고,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 번째 학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5월이 되면 조금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가게 매출은 형편없습니다. 지난 겨울부터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저녁에만 아르바이트를 썼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5월 12일 상가 재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몇 천 만원의 권리금도 포기하고, 비싼 주방집기들은 정말 터무니없는 가격에 넘겼습니다. 가게의 집기를 빼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울었습니다. 버티던 수문이 터져버린 것처럼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괜찮다', '이제 좋은 일만 생길 거다'라는 위로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 닫은 자영업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자비로 상가를 원상복귀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리 나를 이해하는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저는 여전히 힘들고 괴롭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데', '손해 본 금액을 내가 살면서 만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울컥울컥 눈물이 납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다행인 것은 상담심리를 공부하면서 나를 위로하는 방법과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을 이해하는 배움'이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힘들어하고 우울해 하며 무너졌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뒤늦게 시작한 공부로 인해서 버티내고, 흘러보내고, 받아들이고 서로 위로하는 삶의 방식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장하고 변화하고 있는 중입니다.